

자발화표본 분석을 통한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구문 특성*

김 성 수**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이 상 경

단국대학교대학원

안 효 자***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자발화 산출로부터 언어습득의 주요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이들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구문 수준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상은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15명의 필리핀 출신 결혼여성 이민자와 15명의 한국인 기혼여성이었다. 인터뷰형식의 대화를 통해 수집한 대상들의 자발화표본을 분석한 후, 어휘 측면에서 총낱말수(NTW)와 다른낱말수(NDW), 구문 및 발화길이 측면에서 평균 형태소길이(MLU-m)와 평균낱말길이(MLU-w), 그리고 구문적 복잡성 측면에서 복합구문 비율(PCS)을 구하고, *t*-검정을 통해 각각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NTW와 NDW, MLU-m과 MLU-w, 그리고 PCS 모두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집단이 한국여성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한국에 입국한 기간이 비교적 긴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도 충분한 한국어능력을 습득하지 못하여, 어휘 사용에 제한을 가질 뿐 아니라, 구문적으로도 보다 짧고 단순한 발화를 산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이들의 어휘 수준 및 구문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

주제어 :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CLD) 인구,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자발화표본 분석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KRF-2009-32A-B0013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KRF-2009-32A-B00135).

** 제1저자(sskim@dsu.ac.kr)

*** 교신저자(callm68@hanmail.net)

I. 서 론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여성이민자수는 2001년 25,182명, 2006년 65,243명이었으며, 2010년 현재는 120,831명의 결혼여성이민자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이 같은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이들이 처한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적응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학문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된 변인들 중 하나는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미 국내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들의 열악한 한국어능력 및 그로부터 야기되는 기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온 바 있다.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70%이상에서 한국어능력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형숙(2003)은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라고 하였고, 권복순(2009)은 결혼여성 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에의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이들의 낮은 한국어능력은 자녀의 언어와 인지 및 정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효진, 최진선, 2007; 서현, 이승은, 2007; 우현경 외, 2009).

언어치료 분야에서도 최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언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대개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초점을 둔 채로 이들의 어휘, 이야기, 읽기, 음운인식, 조음 및 음운변동 영역 등에서의 언어발달 및 기타 관련변인(황상심, 2010; 이수정 외, 2008; 배소영 외, 2010; 안성우, 신영주, 2008; 박지윤, 2009; 류현주 외, 2008; 강금화, 황보명, 2010)을 밝히는 것에 보다 국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적지 않은 연구들이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어능력을 다루고, 공통적으로 이들의 한국어수준이 낮음을 밝힌 바 있으나, 이 연구들은 대개 이들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배소영 외, 2009; 최현옥, 황보명, 2009; 우현경 외, 2009; 정순연, 2008) 또는 문화적응 및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권복순, 2009; 배경의 외, 2010)를 밝히는 과정에서,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한국어능력 그 자체에 관한 체계적 분석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즉, 이들 연구에서의 결혼여성 이민자들은 대개 여러 출신국가들이 혼합된 집단이었으므로, 특정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여성들의 한국어습득 특성을 국가별로 달리 분석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이들의 한국어능력 측정을 위한 도구 역시 예를 들면, 그림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1995)나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와 같이, 주로 기존 한국어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이었거나(황상심, 2007; 최현옥,

황보명, 2009), 또는 심지어 설문방식으로 대상들의 자가평가를 통해 측정(권복순, 2009; 이재분, 김혜원, 이해영, 2009)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해석에 부분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표준화검사가 보편적인 언어평가 방식임에는 틀림없으나, 몇몇 연구자들은 문화 및 언어학적으로 다양한(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LD) 집단의 정확한 언어평가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준지향적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Taylor & Payne, 1983; Wyatt, 1995).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자발화표본 분석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Franklin, 1992; Hanson, 1992). 최현욱, 황보명(2009) 역시 자신들의 연구에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발생된 검사 도구 적용연령의 문제점과 몇 가지 표준화검사 결과만으로 이들의 한국어능력이 대표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들어, 향후 자발화표본 분석과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발화표본 분석과 같이 CLD집단에 더욱 정교하며 민감한 방식을 통하여 결혼여성 이민자의 언어습득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국내에 부족한 실정이다.

언어습득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Leadholm과 Miller(1995)는 언어의 발달적 진보를 나타내는 3가지 핵심표지가 평균발화길이(MLU), 다른낱말수(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그리고 총낱말수(total number of words; NTW)라 하였고, Crystal, Fletcher와 Garman(1989)은 복합구문비율(percentage of complex syntax; PCS) 역시 개인의 전반적인 구문능력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 출신의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한국어습득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같은 핵심표지에 입각한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동시에 동일 표지에 대해 한국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수립된 비교 자료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표준화검사만으로는 대상들로부터 이 같은 표지들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자발화표본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자발화 수집방식은 대화와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story)이다(Dollaghan, Campbell & Tomlin, 1990; Merrit & Liles, 1989). 그러나 자유놀이는 연령상 성인에게 적합할 수 없으며, 이야기는 말해야 할 이야기 자료에 따라 산출되는 구문이나 어휘를 한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CLD 성인 집단인 결혼여성 이민자의 자발화표본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몇 가지 화제에 대한 질문과 자유로운 답변이 이루어지는 인터뷰식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010년 현재 국내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 비율은 조선족 포함 중국계(45.9%), 베트남(28.1%), 일본(7.9%)에 이어, 필리핀(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비록 필리핀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기타 한자문화권과 달리 영어라는 모국어의 특성은 한국어의 그것과 더욱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순연(2008)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거주기간에 따라 높아지지만, 출신국에 따라 평균점수가 조선족, 일본인, 기타민족, 필리핀 순으로 낮아져, 필리핀 출신이 한국어습득에 가장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어능력에 관한 체계적인 기초 자료가 독립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한 후 비교적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까지의 한국어능력 정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경우, 초기에는 다소 지체를 보이다가, 대략 5, 6세경이면 정상범주에 들어설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황혜신, 황혜정, 2000)에 입각하여, 적어도 한국어습득이 시작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어능력 정도를 조사해 본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아동과 성인의 제2언어습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지 5년 이상이 지나 일상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태의 대화방식으로 수집한 자발화표본 분석을 통하여, 어휘 습득 및 사용 측면에서 총낱말수(NTW)와 다른낱말수(NDW)를, 구문 및 발화길이 측면에서 평균형태소길이(MLU-m)와 평균낱말길이(MLU-w)를, 그리고 구문적 복잡성 측면에서 복합구문비율(PCS)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한국여성 집단의 측정치와 각각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한국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어휘, 구문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대상

<표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 통계학적 특성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한국여성			
대상 (n=15)	생활 연령 (년)	거주 기간 (년)	학력	모국어	직업	한국어 \수준*	대상 (n=15)	생활 연령 (년)	학력	직업
P01	39.5	12.7	고졸	영어	무직	중	K01	40.0	고졸	무직
P02	42.5	8.9	대학중퇴	영어	영어강사	중	K02	39.0	고졸	무직
P03	35.4	6.11	대졸	영어	무직	중	K03	31.0	고졸	무직
P04	36.8	5.7	대졸	영어	농업	중	K04	35.5	고졸	무직
P05	33.7	10.8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05	37.4	고졸	무직
P06	33.2	6.8	대졸	영어	공장노동자	중	K06	36.5	고졸	무직
P07	34.1	10.9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07	44.0	고졸	무직
P08	35.6	6.8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08	35.3	전문 대졸	방과후강사
P09	34.9	8.8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09	38.2	전문 대졸	자영업
P10	37.5	10.8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10	33.4	전문 대졸	방과후강사
P11	37.4	11.6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11	34.2	전문 대졸	무직
P12	41.6	8.9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12	34.3	대졸	사무직
P13	39.2	12.5	대졸	영어	요양보호사	중	K13	38.9	대졸	무직
P14	35.7	11.9	대졸	영어	영어강사	중	K14	42.2	대졸	개인사업
P15	34.8	11.9	대학원중퇴	영어	영어강사	중	K15	35.8	대졸	무직
평균	36.8	9.7					평균	37.3		
SD	2.73	2.42					SD	3.34		

* 설문방식에 의거하여 대상들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정도

이 연구는 G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15명의 필리핀 출신 결혼여성 이민자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비교집단으로는 한국인 기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선정 기준은 (1) 실험집단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필리핀 출신의 국제결혼여성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스스로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중’ 이상으로 자평한 기혼여성이며, (2) 비교집단은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의사소통 결함을 갖지 않는 한국인 기혼여성으로 하였다.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집단은 생활연령 33.2~42.5세(평균 36.8세, 표준편차 2.73), 한국어습득기간(거주기간) 5.7~12.7년(평균 9.7년, 표준편차 2.42)에 분포하고 있었다. 모국에서의 최종학력은 고졸 1명, 대학중퇴 1명, 대졸 12명, 대학원중퇴 1명이었다. 한국여성집단은 생활연령 31.0~44.0세(평균 37.1세, 표준편차 3.31)에 분포하였고, 최종학력은 고졸 7명, 전문대졸 4명, 대졸 4명이었다. 대상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기초 자료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절차

1) 자료 수집

먼저 대상과의 간단한 인사와 이 연구의 구체적인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들에게 사회인구통계학적 설문문항에 직접 글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발화표본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을 묻고 대상에게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는 인터뷰식 대화방식(Evans & Craig, 1992)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기혼여성들의 결혼생활 및 양육체험 등 한국사회적응의 전반에 관련된 화제에 대해 총 13개의 문항을 구성하고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한국여성에게 해당되지 않는 질문은 유사한 다른 질문으로 대체(예,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는?” →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때는?”)하여, 1-9번은 동일한 질문으로, 10-13번은 다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해당 화제별 질문들은 두 집단 각각에게 질문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질문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질문을 2회 이상 다시 들려주었다. 대상이 답변을 원치 않거나, 질문에 답한 후 5초 이상 침묵하여 연구자의 “더 하실 말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할 경우엔 즉각 다음 질문을 진행하였다. 모든 대상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하였으나, 대상이 하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 스스로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이어서 미리 대답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해당 질문을 생략하였다. 대상이 발화하는 중간중간 연구자는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땠죠?”, “그래요?”와 같은 구어자극,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짓는 등의 비구어적 자극

을 함께 제공하였다. 대상의 발화가 불명료했을 때는 1~2회에 한하여 “네?”, “뭐라구요?”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여 대상이 재발화하도록 유도하였다.

모든 과정은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진행하였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한국어로 이루어졌으며, 통역은 필요치 않았다. 실험시간은 약 60~80분이 소요되었고, 자발화표본 수집의 전 과정은 SONY ICD UX400F 디지털보이스레코더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2) 자료 분석

발화는 자료 수집 후 1주일 이내에 녹음된 자료를 들으며 전사하였다. 총날말수(NTW) 및 다른날말수(NDW)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대상들의 발화수를 일치시켰다. 이를 위해 대상의 전체발화로부터 앞과 뒤에서 동일한 수의 발화를 제외하여 중간의 나머지 300발화만을 추출하였다.

대상의 발화 가운데 조음이 불명료한 발화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중얼거림, 영어로 대치된 낱말이나 문장, 그리고 “음, 네, 아니오”와 같은 단순 반응은 발화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회 이상 동일한 발화가 단순반복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의 발화만을 포함하였고, 대상이 자기수정을 했을 때(예,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 아빠가”)는 최종 수정된 발화만을 포함시켰다.

산출된 자발화표본을 각각의 개별 발화로 구분하고, 최종 300 발화에 대하여 형태소수, 낱말수 그리고 복합구문수를 측정 한 후, (1) 총날말수(NTW)와 다른날말수(NDW), (2) 평균형태소길이(MLU-m)와 평균날말길이(MLU-w), 그리고 (3) 복합구문비율(PCS)을 계산하였다. 발화 구분과 형태소 및 낱말 구분방식, 그리고 NTW와 NDW 계산방식은 모두 김영태(2002)의 원칙을 따랐다.

복합구문은 LARSP 프로파일(Crystal, Fletcher & Garman, 1989)의 단계 V-VII에 해당하는 발화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어 구문과 상이한 부분은 제외하고, 대등적 연결문장, 종속적 연결문장, 1개 이상의 절(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을 안은문장(내포문), 비교문, 사동문, 피동문을 복합구문으로 정의하였다. 복합구문비율은 전체 복합구문의 수를 단문 이상으로 구성된 전체 절의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Wren, 1985; 김성수, 이상경, 2008에서 재인용).

MLU-m, MLU-w, 그리고 PCS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평균형태소길이(MLU-m) = 각 발화 형태소수의 합 ÷ 총 발화수

평균날말길이(MLU-w) = 각 발화 낱말수의 합 ÷ 총 발화수

복합구문비율(PCS) = 각 발화 복합구문수의 합 ÷ 총 절수 × 100(%)

3) 신뢰도 및 통계 처리

공동연구자 2명이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각각 발화구분 96%, 형태소수 91%, 총낱말수 94%, 다른낱말수 93%, 그리고 복합구문수 90%였다.

자발화표본 분석을 통해 산출된 NTW, NDW, MLU-m, MLU-w, 그리고 PCS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영문판 윈도우즈 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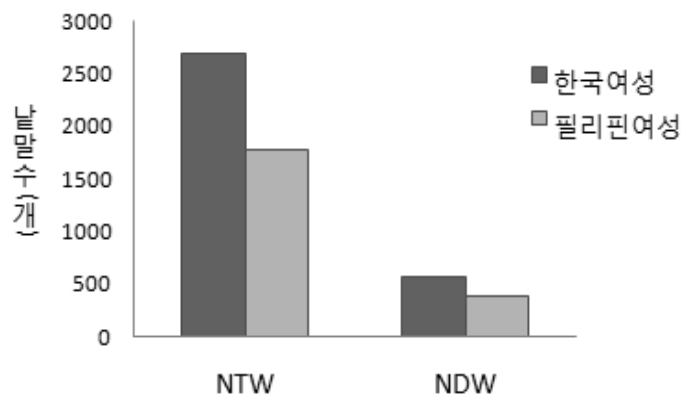
1. 낱말수: 총낱말수(NTW)와 다른 낱말수

인터뷰 형식의 대화방식을 통하여 수집한 대상들의 자발화표본으로부터 나타난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집단과 한국여성 집단 간의 한국어 어휘 사용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NTW와 NDW를 측정 후, 각각에 대하여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차이검정 결과를 <표 2>에 제시하고, <그림 1>로 도표화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NTW는 한국여성 2681.9개 (SD=485.7),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집단 1776.1개 (SD=432.7)로 나타났다. 그리고 NDW는 한국여성 집단 562.3개 (SD=161.6),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집단 378.7개 (SD=60.0)로 나타났다. NTW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유의하였고($t=5.392, p<.001$), NDW의 차이 역시 집단 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4.214, p<.001$). <그림 1>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이, 필리핀 여성들의 NTW와 NDW는 한국여성들의 각각 66.2%와 67.3%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산출한 전체 낱말수 및 서로 다른 낱말의 수는 한국여성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음을 의미한다.

<표 2> 집단에 따른 총낱말수(NTW)와 다른낱말수(NDW) 기술통계 및 차이검정 결과

구분	집단(n=15)	평균(개)	표준편차	범위(개)	t
NTW	한국여성	2681.9	485.7	1889-3750	5.392*
	필리핀 결혼여성	1776.1	432.7	1122-2620	
NDW	한국여성	562.3	161.6	379-1080	4.214*
	필리핀 결혼여성	378.7	60.0	282-538	

* $p < .001$



<그림 1> 집단에 따른 NTW와 NDW

2. 평균발화길이: 평균형태소길이(MLU-m)와 평균낱말길이(MLU-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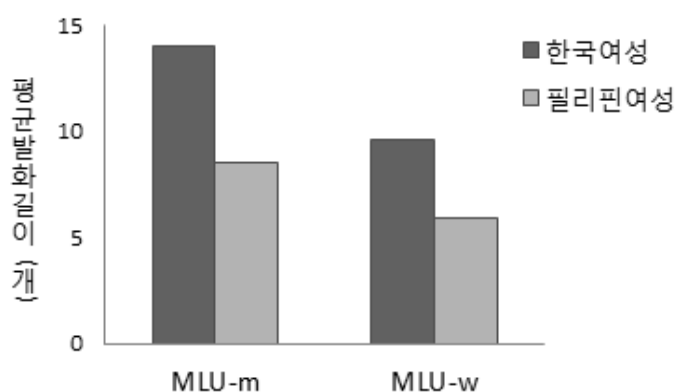
대상들의 자발화표본으로부터 나타난 두 집단 간의 평균발화길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MLU-m과 MLU-w를 측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차이검정 결과를 <표 3>에 제시하고, <그림 2>로 도표화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MLU-m은 한국여성 14.0개 (SD=2.67),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집단 8.5개 (SD=1.96)로 나타났다. 그리고 MLU-w는 한국여성 8.9개 (SD=1.62),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5.9개 (SD=1.44)로

나타났다. MLU-m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유의하였고($t=6.360, p<.001$). MLU-w의 차이 역시 집단 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5.392, p<.001$). <그림 2>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 집단의 MLU-m과 MLU-w는 한국 여성 집단에 비하여 각각 60.7%와 66.2%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은 한국어의 구문적 발화길이 형태소 및 낱말 측면 모두에서 한국 여성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짧았음을 의미한다.

<표 3> 집단에 따른 평균 형태소 길이(MLU-m)와 평균 낱말 길이(MLU-w) 기술 통계 및 차이 검정 결과

구분	집단(n=15)	평균(개)	표준편차	범위(개)	t
MLU-m	한국여성	14.0	2.67	10.5-20.7	6.360*
	필리핀 결혼여성	8.5	1.96	5.5-12.3	
MLU-w	한국여성	8.9	1.62	6.3-12.5	5.392*
	필리핀 결혼여성	5.9	1.44	3.7-8.7	

* $p<.001$



<그림 2> 집단에 따른 MLU-m과 MLU-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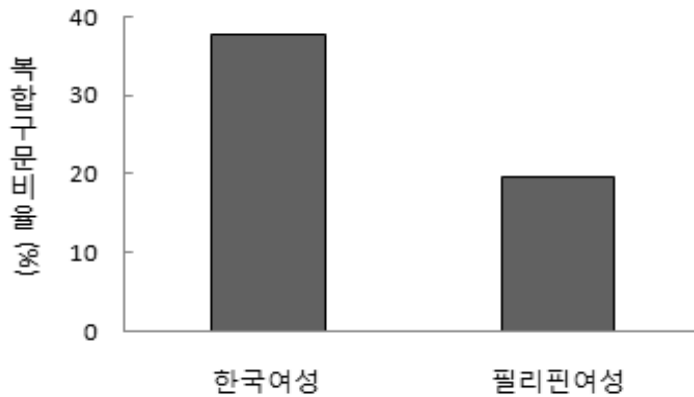
3. 복합구문비율(PCS)

대상들의 자발화표본으로부터 나타난 두 집단 간 발화의 구문적 복잡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CS를 측정 한 후,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 통계 및 차이검정 결과를 <표 4>에 제시하고, <그림 3>으로 도표화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PCS는 한국여성집단 37.7%(SD=15.0),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집단 19.7%(SD=11.8)였고, 집단 간 평균차이는 유의하였다($t=3.650$, $p<.001$).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필리핀여성들의 PCS는 한국여성들에 비하여 약 절반 수준(52.2%)에 불과하였다. 이는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자발적 발화에서 사용한 복합적 구문의 평균비율이 한국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표 4> 집단에 따른 복합구문비율(PCS) 기술통계 및 차이검정 결과

구분	집단(n=15)	평균(%)	표준편차	범위(%)	<i>t</i>
PCS	한국여성	37.7	15.0	12.7-64.3	3.650*
	필리핀 결혼여성	19.7	11.8	6.9-46.4	

* $p<.001$



<그림 3> 집단에 따른 복합구문비율(PCS)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한 특정집단으로서의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어휘, 구문습득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대상들의 자발적 발화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 양상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15명씩의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와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응과 관련된 화제 중심의 인터뷰식 대화방식으로 수집한 자발화표본 중 300발화를 추출하였다. 이에 대해 총낱말수(NTW)와 다른낱말수(NDW), 평균형태소길이(MLU-m)와 평균낱말길이(MLU-w), 그리고 복합구문비율(PCS)을 구하고, 측정된 지표들을 집단 간에 비교하였다.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TW와 NDW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산출한 평균 NTW(1776.1개)와 NDW(378.7개)는 한국여성들(2681.9개, 562.3개)에 비해 각각 66.2%와 67.3%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은 한국여성에 비하여 한국어 발화시에 사용한 전체 낱말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어휘습득 및 어휘사용과 관련된 한국어능력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MLU-m과 MLU-w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산출한 평균 MLU-m(8.5개)과 MLU-w(5.9개)는 한국여성들(14.0, 8.9개)에 비해 각각 60.7%와 66.2%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은 한국여성들보다 구문적으로 형태소와 낱말 측면 모두에서 더욱 짧은 길이의 발화들을 주로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PCS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산출한 PCS(19.7%)는 한국여성들의 PCS(37.7%)에 비하여 대략 절반수준(52.2%)에 불과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복합구문의 조작적 정의가 대등적 연결문장, 종속적 연결문장, 1개 이상의 절(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을 안은문장(내포문), 비교문, 사동문, 피동문임을 감안한다면(Crystal, Fletcher & Garman, 1989),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은 한국어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처럼 구문적 복잡성이 높은 수준의 발화는 평균적으로 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단문 위주의 좀 더 단순한 구문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적어도 이 연구에 참여한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열거된 모든 지표에서 한국여성들이 산출한 수준의 대략 65% 전후에 불과한 수행을 보임으로써, 이들은 한국여성과 비교하여 의미적으로는 낱말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구문적

으로는 보다 짧고 단순한 발화를 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er(1991)는 NDW는 의미적 능력을, MLU는 구문적 능력을, 그리고 NTW는 말속도, 발화구성, 말운동 등과 같은 보다 전반적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제안(김영태, 2002에서 재인용)하였고, Crystal, Fletcher와 Garman(1989)은 PCS가 구문적 복잡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하였다. 결국 이 연구에 참여한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은 비록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지 5년 이상이 지나 일상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에서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의미, 구문 및 기타 일반적인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들 전반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15명은 이 연구에서 자신의 언어수준에 대해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 모두 ‘중’ 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심지어 국내거주기간이 10년을 넘은 여성이 절반 이상(8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상’ 이라 자평하지 않았다. 비록 이 연구와 그 대상의 특성 및 언어검사 방식 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낮은 한국어능력(최현욱, 황보명, 2009; 우현경 외, 2009), 그리고 특히 필리핀 출신 여성들의 낮은 한국어능력(정순연, 2008; 윤형숙, 2003)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은 이 결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국내 거주기간이 기간이 비교적 길었음(5~10년 이상)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에 이처럼 취약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아동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는 비록 대상의 특성이나 이중언어 환경 및 습득하는 언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 초기에는 비교적 어려움을 보이다가 5, 6세경에는 정상발달범주에 속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황혜신, 황혜정, 2000; 우현경 외, 2009). 그러나 이미 제1언어습득이 종료된 성인기에 들어 추가적으로 제2언어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동 학습자집단의 수행과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이는 한편 언어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가설로 해석될 수 있다. 결정적 시기란 생애 첫 5~7년 동안 언어가 최대한의 용이성으로 매우 빠르게 발달하는 구간을 의미한다(Pence & Justice, 2006). Johnson과 Newport(1989)는 3~39세 사이에 미국에 건너 온 중국어 및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의 영어능력을 조사한 결과, 7세 이전에 제2언어로 영어습득을 한 대상의 영어능력이 가장 정교했던 반면, 17세 이후 영어를 배운 이들은 가장 덜 정교했음을 보고하며, 역시 이를 결정적 시기 가설로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의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은 언어의 습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기발달 과정을 지나쳤으므로, 한국어습득 기간이 이미 5년 이상 경과했다 할지라도 동시에 또는 짧은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아동에게 기대되는 바와는 수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영어라는 모국어 특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 연구에서 다른 출신국가 여성들을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중국계, 베트남, 일본 등 한자문화권 출신 여성들에 비해 이들의 한국어능력이 가장 낮았다는 선행연구(정순연, 2008)를 감안하여 보면 다른 언어에 비하여 영어와 한국어가 가지는 상이함이 더욱 컸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윤형숙(2003)은 타국가 출신 여성들에 비해 필리핀여성들이 가지는 모국어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거론한 바 있다. 즉,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가 중시되는 한국사회에서 경제활동 및 가족 내 지위와 역할 협상에 영어구사능력을 주요자원으로 사용하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연구에 참여한 15명 중 10명이 영어 원어민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 연구에서는 대상들로부터 이러한 견해를 직접 조사한 바는 없으나, 결국 이같은 특성이 이들로 하여금 기본적 의사소통 이상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저하시킨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결혼여성 이민 유입과 자녀 출생 등 다문화인구 증가의 지속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언어치료분야에서도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CLD) 인구를 임상에서 직면하게 될 가능성 역시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에 임상가들은 다문화가정 아동 뿐 아니라, 이들의 외국인 출신 어머니들의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여성들의 한국어능력이야말로 스스로의 건강한 문화 적응 뿐 아니라 자녀의 언어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권복순, 2009; 구효진, 최진선, 2007; 서현, 이승은, 2007). 즉, 유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어머니의 언어입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Tardif et al., 1997), 이중언어아동들은 비다문화가정 아동과는 다른 어휘발달 특성을 가지며(Bialystock, 2001), 그리고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표현어휘력과 자녀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 등 기타 언어영역 간의 높은 상관성이 있음(황상심, 2007; 최현옥, 황보명, 2009, 우현경 외, 2009)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의 부족한 한국어능력은 결국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표적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치료분야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의 어휘 수준 및 구문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습득에 관한 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략의 개발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특히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들의 한국어습득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들을 통해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스스로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나아가 자기 자녀들의 건강한 언어발달을 위한 양질의 언어입력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한국어능력을 일반적인 표준화검사 도구로 측정한 바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표준화검사 도구는 먼저 적용 연령이 성인에까지 확대될 수 없으며, 또한 모집단이 한국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제작 당시의 표준화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다문화인구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발화표본 분석방식을 통해 외국인 출신 성인인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한국어 어휘, 구문능력을 보다 민감한 방식으로 반영해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일 표지에 대한 한국인 성인여성집단의 수행수준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 역시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초점은 어휘와 구문능력 정도를 나타내주는 핵심표지에 입각하여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어습득의 제반 양상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구문적 측면에서 발화길이나 복합구문비율 외에도 형태소 굴절과 관련된 구문적 오류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의미적 측면에서 사용된 낱말의 품사별 비율이나 의미관계와 같은 변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이들의 한국어습득 양상에 관한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정순연, 2008)에서는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한국어능력은 한국어 습득기간, 즉 국내체류기간에 상관되어 있다고 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상들의 특성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의 자발화표본 분석 연구에서는 대상들의 한국어습득기간을 구간별(예, 1~5년, 5~10년, 11년 이상)로 나누어 다문화인구의 제2언어습득의 경로와 각 단계별 양상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대상의 학력이나 소득 및 직업 등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혹은 대상들을 출신 국가별로 달리하여 이들의 자발화 산출 특성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도 역시 그 의의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자발화표본 분석에 기반하여 특정집단으로서의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한국어 어휘, 구문습득 양상에 관한 기초 자료 수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조사에 참여한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의 수가 많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전체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의 자발적 발화에서의 구체적인 한국어 수행능력을 대표하는 자료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대상의 수를 확장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금화, 황보명 (2010). 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143-158.
- 경상북도 (2007).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경상북도청.
- 구효진, 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권복순 (2009).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성수, 이상경 (2008). 자발적 발화 표본 수집 방식으로서의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3(1), 44-62.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류현주, 김향희, 김화수, 신지철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음성과학**, 15(3), 133-144.
- 박지윤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의 관련성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경의, 이경혜, 김영희, 김수, 김희경, 김지현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행위와 양육효능감. **아동간호학회지**, 16(3), 175-183.
- 배소영, 권유진, 진연선, 전홍주, 락금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언어치료연구**, 19(2), 53-72.
- 배소영, 락금주, 김근영, 정경희, 김효정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언어치료연구**, 18(40), 165-184.
-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서 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안성우, 신영주 (2008). 저소득층 일반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7(4), 81-94.
-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윤형숙 (2003).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6), 1-14.
-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95-116.
- 이재분, 김혜원, 이해영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현황 및 인식. **한국교육**, 36(2), 3-29.

- 정순연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현욱, 황보명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2010년 3분기 통계. <http://www.go.kr>.
- 황상심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황상심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9(1), 193-209.
-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Bialystock. (2001). *Bilingualism in Development: Language, literacy, and cogn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ystal, D., Fletcher, P., & Garman, M. (1989). *The grammatical analysis of language disability (2nd ed.)*. London: Edward Arnold.
- Dollaghan, C. A., Campbell, T. F., & Tomlin, R. (1990). Video narration as a language sampling contex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5, 582-590.
- Evans, J. L., & Craig, H. K. (1992). Language sampling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view compared to replay assessment contex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43-353.
- Franklin, M. (1992). Culturally sensitive instructional practices for African American learners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59, 115-122.
- Hanson, M. (1992). Ethnic, cultural, and language diversity in intervention settings. In E. Lynch & M. Hanson.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p. 1-18). Baltimore: Brookes.
- Johnson, C. J., & Newport, E. L.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 60-99.
- Leadholm, B. J., & Miller, J. (1995). *Language Sample Analysis: The Wisconsin guide*. Wisconsin: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Merrit, D. D., & Liles, B. Z. (1989). Narrative analysis: Clinical applications of story generation and story retell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429-438.
- Miller, J. F. (1991). Quantifying productive language disorders. In J. F. Miller. (Ed.), *Research on child language disorders: A decade of progress*. Austin, TX: Pro-Ed.
- Pence, K. L., & Justice, L. M. (2006). *Language development from theory to practice*.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Tardif, T., Shatz, M., & Naigles, L. (1997): Caregiver speech and children's use of nouns and verbs: A comparison of English, Italian and Mandarin. *Journal of Child Language*, 24, 535-565.

- Taylor, O., & Payne, K. (1983). Culturally valid testing: A proactive approach.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3*, 8-20.
- Wren, C. T. (1985). Collecting language samples from children with syntax problem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83-102.
- Wyatt, T. (1995). Language development in African American English child speech. *Linguistics and Education, 7*, 7-22.

Korean Lexical and Syntactic Traits of Philippine
Marriage-Immigrant Women through Spontaneous
Language Sample Analysis

Kim, Sung Soo

Dept. of Speech Therapy, Dongshin University

Lee, Sang Kyoung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An, Hyo Ja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language acquisition of Philippine marriage-immigrant women (PMIW) through the spontaneous language sample analysis. The subjects were 15 PMIW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and 15 Korean married women. Using the interviewing conversational method, we collected participants' spontaneous utterances and analyzed the data with 5 measures: NTW, NDW, MLU-m, MLU-w, and PCS. Using the *t*-test, we determin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for each measures. The results were shown that the performances of PIMW in all 5 measures(NTW, NDW, MLU-m, MLU-w, and PC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Conclusively, this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PIMW have learned Korea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for a quite long period, they have still difficulties in speaking Korean language with semantically various words and syntactically long and complex sentences. This conclusion could suggest that clinicians should plan and continuously monitor to facilitate the Philippine marriage-immigrant women's abilities in the lexical and syntactic areas.

Key Words

: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LD) population, Philippine marriage-immigrant women, Spontaneous language sample analysis

논문 접수: 2011. 01. 27 심사 시작: 2011. 02. 09 게재 확정: 2011. 03. 16

<부록 1> 자발화표본 수집용 인터뷰식 대화 질문지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집단용	한국여성집단용
1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4	임신했을 때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5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별히 몸이 아팠던 일이 있었나요?	
6	아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7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하였나요?	
8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9	앞으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0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특별한 취미나 기술은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11	한국어를 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취미나 기술을 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변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3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을 때는 언제입니까?